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 First Sunday in Advent

대강절(Advent)은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왔습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이 네 주간을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으로 지냅니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밝혀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성탄 전야와 성탄절 아침에는 '그리스도의 초'를 밝혀 어둠 속으로 오시는 참 빛을 맞이합니다.

매주 다음과 같은 의미의 초를 밝힙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소망의 초 (보라색 또는 청색)
대강절 둘째 주일: 사랑의 초 (보라색 또는 청색)
대강절 셋째 주일: 기쁨의 초 (분홍색)
대강절 넷째 주일: 평화의 초 (보라색 또는 청색)
성탄절 전야/성탄절: 그리스도의 초 (흰색)

대강절 촛불은 어둠 속으로 오시는 생명의 빛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밝히는 것은 그 믿음을 눈에 보이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촛불은 예배 인도자나 미리 지정한 이가 밝힙니다.

Advent comes from the Latin word adventus, meaning "coming." It is the season when we wait for the one who comes down from heaven: Jesus Christ. The church keeps these four weeks as a time of waiting and preparation. Each Sunday, we light one candle to mark his coming, and on Christmas Eve and Christmas morning, we light the "Christ Candle" to welcome the true Light who comes into the darkness.

Each week, we light a candle with the following meaning:

First Sunday of Advent: The Candle of Hope (purple or blue)
Second Sunday of Advent: The Candle of Love (purple or blue)
Third Sunday of Advent: The Candle of Joy (pink)
Fourth Sunday of Advent: The Candle of Peace (purple or blue)
Christmas Eve/Christmas Day: The Christ Candle (white)

The Advent candles point to the Light who comes into the darkness. The world is still dark, yet the church believ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again as the Light of the world.Lighting one candle each Sunday is a way of confessing that faith so that it can be seen. The candles are lit by the worship leader or by designated members of the congregation.

입장 및 촛불 점화

보라색/청색 초를 하나 점화한다.

환영

한 해 중 밤이 길어지는 때에, 교회는 대강절 첫 초를 밝힙니다. 소망의 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빛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

PROCESSIONAL AND CANDLE LIGHTING

Light one purple/blue candle.

WELCOME

These are the longest nights of the year. In this season, the church lights the first candle of Advent, the candle of hope. In the name of Christ our light, we welcome all

다. 어둠 가운데 빛을 더듬어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여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14)

위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계절에 주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약속은 더디고 응답은 아직 보이지 않으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흔들리는 마음에 다시 소망을 지펴 주소서. 아멘.

***찬송**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말씀 교독 (시편 130편)**

인도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다같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인도자: 주께서 죄악을 낱낱이 헤아리신다면, 주여,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다같이: 그러나 주께는 용서가 있으니, 우리가 주를 경외합니다.

인도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다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인도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같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송영**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of you who have gathered here to worship, setting your hope on God. With hearts reaching through the darkness for the light, let us praise and lift up the Lord together.

CALL TO WORSHIP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wait for the Lord!" (Psalm 27:14)

God of all comfort, in this season of deep darkness, we come before you, longing for you. Your promise is slow in coming, and the answer is not yet in sight, yet our souls wait for you as we wait for the morning. O Lord, you who come to us before we ever come to you, be present in this worship and kindle hope once more in our wavering hearts. Amen.

***HYMN**

"O Come, O Come, Emmanuel"
United Methodist Hymnal 211

RESPONSIVE READING (Psalm 130)

Leader: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 Lord.

All: O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plea.

Leader: If you, O Lord, kept account of our sins, O Lord, who could stand?

All: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and so we stand in awe of you.

Leader: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and in his word, I put my hope.

All: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watchers wait for the morning.

Leader: O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All: For with the Lord there is steadfast love, and with him is full redemption.

***AFFIRMAT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HYMN**

Gloria Patri

기도

소망의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흠 없이 살면서 오랜 세월 빈손으로 기다린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랜 세월 간구하고 또 간구했으나 아직 침묵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침묵 속에서 조급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정한 기한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끝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게 하소서. 사가랴가 자기 차례를 따라 분향단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일상 한복판으로도 찾아와 주소서.

근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게 하소서.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곁 이웃에게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손이 되게 하소서. 대강절 첫 주일, 소망의 초를 켜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누가복음 1:5~25

추천하는 다른 성경 본문

시편 80:1~7, 17~19, 이사야 64:1~9, 고린도전서 1:3~9, 마가복음 13:24~27

특별 찬양

설교

"하늘이 평범한 일상을 찾아올 때"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봉헌

PRAYER

God of hope, we remember Zechariah and Elizabeth. We remember their long years, blameless before you, yet waiting empty-handed into old age. We carry such prayers too, petitions we have offered again and again that still return to us only in silence.

Lord, in that silence, keep us from collapsing into impatience. Do not let us pin our hope on dates of our own choosing, but help us trust you, who know the end, and stay faithful in the place you have given us today. As you walked into that ordinary moment when Zechariah simply took his turn at the altar of incense, come also into the middle of our everyday lives.

We lay our worries down before you; fill that empty space with your peace. Keep us from turning inward, and lead us to look to the neighbor beside us, becoming hands that share the grace we have received. On this first Sunday of Advent, as we light the first candle of waiting, we look to you and pr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SCRIPTURE READING

Luke 1:5-25

Suggested Lectionary Readings:

Psalm 80:1-7, 17-19, Isaiah 64:1-9, 1 Corinthians 1:3-9, Mark 13:24-27

ANTHEM

SERMON

HYMN OF RESPONSE

"My Hope Is Built"

United Methodist Hymnal 368

OFFERING

성찬식

대강절 첫 주는 새로운 절기의 시작일 뿐 아니라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다. 교회력의 시작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파송과 축도**

이제 우리는 다시금 기다림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에게 먼저 걸어오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조급해하지도,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삶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하루를 정직하게 걸어가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그 길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표시가 있는 순서에는 몸으로 혹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경배한다.*

THE SACRAMENT OF HOLY COMMUNION

The first Sunday in Advent is not only the first Sunday of a new season but also the first Sunday of a new Christian year.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celebrate the beginning of a new year with the sacrament of Holy Communion.

***HYMN OF SENDING FORTH**

"Come, Thou Long-Expected Jesus"
United Methodist Hymnal 196

***BENEDICTION AND SENDING FORTH**

Now we return to the place of waiting, the place of ordinary life. Do not set your hope on the passing of time but hold fast to the Lord who has already come to you. Do not grow impatient and do not give up. Trusting God, the Lord of your life, walk honestly through the day set before you today. However deep the darkness, the good and gracious one who comes as light already stands ahead of you on the road.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Amen.

*The * indicates an invitation to all worshipers to rise in body or spirit.*

*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회중을 위한 한영예배 자료로 전요셉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예배는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예배드릴 때 사용할 수 있고, 각 회중이 따로 예배드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v. Yoseb Jeon wrote this order of the First Sunday in Advent for a bilingual Korean-English congregation. This service may be used when the Korean-speaking and the English-speaking members worship together, and it may also be used when each worships separately.

Rev. Yoseb Jeon holds a Bachelor of Art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Hanyang University in Korea and a Master of Divinity from Drew Theological Seminary. He was ordained as an elder in the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and currently serves at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Freehold, New Jersey. He also serves as editor of Slingstones, a publication of Discipleship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